



방송대상에 SBS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9월 3일 방송협회 제39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한국방송협회(회장 우원길 SBS 사장)가 주최하는 제39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29개 부문 33편의 작품상 수상작 중 중단편 드라마 부문 SBS TV <뿌리 깊은 나무>(장태유 연출, 사진)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시상식은 9월 3일 오후 3시부터 KBS홀에서 한석준(KBS), 이성배(MBC), 김주희(SBS) 아나운서 공동 진행으로 열려 SBS TV로 생방송되었다.

이날 장편 드라마 부문 MBC TV <빛과 그림자>

를 비롯해 SBS 라디오 <라디오 오디션 국민 DJ를 찾습니다>, KBS 2TV <개그콘서트>, CBS 라디오 <오미희의 행복한 동행>, KBS TV <한국의 유산>, EBS TV <2012 덩동맹 유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특별기획 한 달간의 민생탐방> 등이 작품상을 받았다.

MBC TV <빛과 그림자>
KBS 2TV <개그콘서트>
CBS 라디오 <오미희의 행복한 동행> 등 29개 부문 33편 작품상 수상

개인상은 공로상 SBS 신인훈, 아나운서상 성기영, 라디오 진행상 손석희, TV 진행상 지승현, 앵커상 KBS 민경옥, 기자상 KBS 홍사훈, 프로듀서상 EBS 김형준, 작가상 EBS 김미란, 성우내레이션상 구자형, 코미디언상 김준현, 특별상 허구연 등 24명이 수상했다.

관련 특집 기사 4면

제30회 런던올림픽

400여 방송인 올림픽 감동의 현장 전해

순차방송으로 시청자 채널선택권 배려 중복 피해 종목 나눠 방송
48년 KBS 민재호 아나운서 단독 파견 주 3회 15분 중계와 금석지감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개최된 제30회 런던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239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사격 3개, 양궁 3개, 펜싱 2개, 유도 2개, 체조 1개, 레슬링 1개, 태권도 1개 등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종합 5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이번 올림픽에서 KBS, MBC, SBS는 지난해 7월 스포츠중계방송발전협의회에서 제정한 운영 규정에 따라 편성권을 정해 순차방송을 함으로써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KBS가 양궁·체조·펜싱·탁구, MBC가 수영·배드민턴·역도·복싱, SBS가 유도·태권도·사격·레슬링을 전담한 가운데, KBS, MBC 각각 110여 명, SBS 양궁과 태권도의 국제신호제작인력 40명을 포

함한 170여 명 등 지상파방송 3사가 총 400명 가까운 인력을 투입해 감동의 현장을 전해주었다.

지상파 3사 중계 전담 종목

KBS 양궁·체조·펜싱·탁구
MBC 수영·배드민턴·역도·복싱
SBS 유도·태권도·사격·레슬링

대한민국 태극기를 달고 처음 참가한 1948년 런던올림픽에서는 67명의 선수 중 역도의 김성집, 권투의 한수안 선수가 동메달 2개를 획득했으며, 취재진으로 단독 파견된 서울중앙방송국 방송과장 민재호 아나운서가 BBC와 제휴해 한국 선수의 경기를 라디오로 월, 수, 금요일 15분씩 중계했다.

관련 특집 기사 7면

한국아나운서연합회 주최 아나운서 전문화 프로그램 글쓰기·낭독 세미나

아나운서와 글쓰기 세미나

소설가 김중혁

매일 관찰한 이미지를 떠올려
생각을 정리한 후 글을 써보라

소설가 김탁환

이야기를 만들며 차이 생각하라
심리 파악과 고증도 필요



장해 놓았다가 생각을 정리한 후 글로 옮기라고 권한 김중혁 씨는 "호흡이 긴 글을 쓰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거나 보고 감상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탁환 씨는 자신의 소설 '밀림무장'을 예로 들어 "이야기를 만들며 차이를 생각하라. 상대의 심리 파악은 물론 철저한 고증과 전문가의 감수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나운서와 낭독 세미나

성우 김세원

완벽해질 때까지 연습한 다음
연기하듯 가볍게 읽어라

전 KBS 아나운서 송지현

삶의 철학이 녹아든 건강한 목소리로
아나운서답게 낭독하라

7월 20일 낭독을 다룬 제4회 세미나에서는 성우 김세원 씨와 선배 아나운서인 송지현(전 DBS-KBS) 씨가 4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내레이션 기법을 전수해주었다.

1964년 TBC 성우 1기로 입사, 지금도 SBS TV '짹'의 내레이터로 활약하는 김세원 씨는 "아나운서의 내레이션이 조금

은 격식을 차린 느낌이 든다. 약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설도 결국 연기다."라고 지적하고 완벽해질 때까지 연습하라고 권했다.

송지현 씨는 '아나운서는 아나운서다워야 한다'고 전제하고, "먼저 프로그램의 성격을 파악하고 경청과 소통을 통해서 제작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내레이션에는 해설자의 해석과 삶의 철학이 녹아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목소리가 건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한국아나운서연합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마련한 2012 아나운서 전문화 프로그램은 '지역 아나운서 활성화, 스포츠캐스터, 글쓰기, 낭독'을 주제로 서울과 대전에서 열려 연인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3분기 클럽 정례 모임

런던올림픽 중계 캐스터와 KBS 39기 올 신입사원 특별 초대

클럽 사무실 목동 방송회관으로 이전 아나운서연합회와 함께 사용하기로

8월 30일 여의도 열빈에서 모여

(사)한국아나운서클럽 정례 모임이 8월 30일 오후 6시 30분 <열빈>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김규홍, 김동건, 김상준, 김효석, 맹관영, 박민정, 박영웅, 박종세, 배덕환, 원종배, 이성화, 이형균, 이해옥, 정홍숙, 차인태, 황인우(가나다 순, 존칭 생략) 회원을 비롯해 KBS 유지철, SBS 이현경, 박은경 캐스터와 KBS 39기 신입 아나운서 강성화, 김지원, 이각경, 이승현, 조항리 등 24명이 참석했다.

김동건 회장은 "하루 차이로 두 태풍이 불어와 모임을 연기할까도 생각했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이 더 소중하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박민정 사무총장은 그동안 클럽에서 KBS해동포상 추천 작업과 화법강좌를 기획했고 한국아나운서연합회의 방송회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기

로 했다며 사무실 이전 소식 등을 전했다.

스포츠캐스터를 대표해 KBS 유지철 스포츠팀장이 오십 논란 등 런던올림픽 이야기를 전하며 "선배님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올림픽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 기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태풍 부는 곳은 날씨에도 24명 참석

신입들의 포부와 시낭송 결며
올림픽 이야기 나누며 오붓하게 진행

KBS 신입사원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강성화 아나운서가 "아나운서의 이름을 빛내주신 선배님들 덕분에 아나운서가 최고의 직업으로 인정받는 것 같다."라고 하자, 차인태 부회장은 "걸어갈 길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한 후 이은상의 '고지가 바로 저긴

데'를 낭송했고, 신입 회원으로 첫 선을 보인 김효석 회원이 신입 아나운서들에게 자신의 책 '팔로우'를 선물했다.

8월 모임은 태풍의 영향으로 참석률은 저조했지만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담당자

들의 후일담과 KBS 신입 아나운서들의 포부를 들으며 오붓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다음 연말 모임은 전과 같이 한국아나운서연합회가 주최하는 '2012한국아나운서대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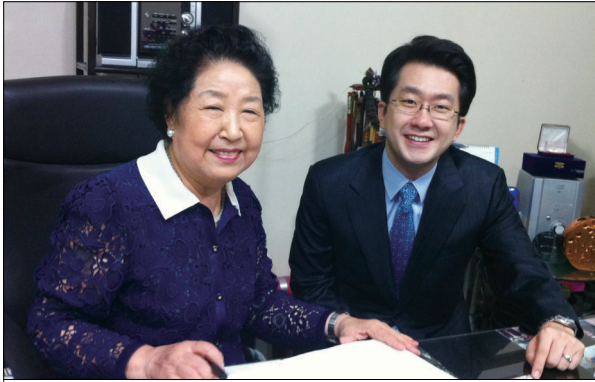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효석, 이형균, 원종배, 이현경, 박은경, 황인우, 박민정, 이해옥, 이승현, 강성화, 조항리, 김지원, 이각경, 유지철, 김상준, 박영웅, 배덕환, 김동건, 박종세, 맹관영, 김규홍, 차인태



“제 삶 속에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네요”

예지원(禮智院) 원장으로 국내외에 예문화 전파하는 80세 현역



▶ 장충동 예지원에서 박재홍 아나운서와 함께
• 1932년 9월 20일 서울 출생 • KBS, MBC 아나운서(1954~1971년)
• 경기여고, 중앙여고 방송반 지도(1962~1970년)
• 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여성분과위원장, 상임위원(1984~1985년)
• 문화관광부 세시풍속생활화추진협의회 위원(1998년~현재)
• 예지원 원장(1974년~현재)

아나운서 생활

요즘 어떻게 지내시지요?
1932년생이니 나이가 든 만큼 하루하루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여유로움 속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아나운서의 꿈을 갖게 되셨는지요?
1953년에 피난지 부산에서 호기심으로 지원한 것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휴전이 되면서 1954년 서울에서 정식으로 모집할 때 다시 응시했는데, 그때 동기가 전영우, 김인숙 아나운서 등입니다.

당시 시험은 뉴스와 수필 등을 낭독했고, 국악과 시조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찌나 떨었는지 원고를 읽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였죠.
신입 아나운서 생활은 어떠했나요?
한글과 한자 공부를 강조했던 시기였고 선배들 교육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아나운서의 기본이었던 발음과 한글, 문화에 대한 교육이 여전히 제게 큰 자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저도 수동적으로 대답만 하는 진행자가 되지 않기 위해 상식과 문화 전반에 대한 지식을 채우려 노력했습니다. 클래식음악 방송하면서 틈틈이 한자 공부를 할 정도였습니다.

50년대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대표적인 여성 아나운서로 활약하셨는데, 당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MBC로 옮긴 뒤에도 진행했던 어린이 노래자랑 <누가누가 잘하나>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출연자들을 위한 선물이 처음엔 '연필 한 자루'였습니다. 연필 한 자루에 감

동했던 동심과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1964년 도쿄올림픽 때 여성 최초로 중계방송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본어 준비도 열심히 해서 당당하게 임했습니다.



1965년 KBS TV 누가누가 잘하나 공개방송을 진행하는 강영숙 아나운서(가운데)

가정생활

선배님은 사내결혼 하셨지요?
얼마 전 작고하신 오재경 전 공보부장관이 한영섭 내신부장(현 방우회 회장)과 혼인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몇 대에 걸친 독자여서 우리 집안에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혹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찌나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으리라 여겼던 거죠. 몇 달 후 남편이 집안 어른들을 설득해 손이 없어도 된다는 내용의 청혼서를 가져왔

더군요. 그러나 저는 아들을 셋이나 낳았고 귀여운 손주들만 다섯입니다.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을 두고 고민하는 직장여성이 많은데요. 선배님은 당시로서는 이례적으로 혼인 후에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으셨습니다.
회사의 배려로 출산 후에도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병행하려면 하루 생활 계획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에 대한 계획과 설계를 합니다. 한마디를 해도 생각을 하며 말하려고 하죠.

원로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왕년에 스타라서 원로인 것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보낸 세월 속에서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후배들이 장취단사(長取短捨), 즉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리면 좋겠네요.

예지원 생활

예支원은 어떻게 설립하게 되셨나요?
우리 문화를 대중에게 알리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시대적 요구 속에 육영수 여사의 권유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1974년부터 예의 기본과 정신 그리고 역사교육을 바탕으로 인사법, 한국복식과 차생활 예절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성장해가는 과정 속의 예문화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예지원의 귀한 점일 것입니다.

한류 바람을 타고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예지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희 예지원의 간판은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문화권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이 친근감을 갖고 올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우리 문화를 제대로 살리고 알기 위해서는 한글과 한자가 양 날개가 되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탕 위에 고유의 예문화가 21세기를 향해 뻗어 나가야 할 것이고 예지원이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후배 아나운서들을 위한 조언

요즘 방송 환경에서 아나운서들이 전문성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나운서는 시사문제에 민감해야 합니다. 늘 공부를 열심히 하고 프로그램을 살릴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잘하는 아나운서가 돼야 합니다. 둘째, 실력 있는 진행자란 방송 게스트를 잘 배려하고 살려주는 진행을 해야 합니다. 후배들을 보며 어떤 점을 느끼시지요? 칭찬도 좋고, 꾸지람이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발음이 중요합니다. 아나운서들이 먼저 공부하며 여러 직종 방송인 발음의 모범이 되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복장입니다. 예를 살리는 멋스러운 복장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고저장단입니다. 우리말을 제대로 하려면 한글과 한자를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끝으로 은퇴를 대비해 초반, 중반, 종반으로 나누어 인생을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쉬지 않는 자기설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제게 예支원은 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정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예지원을 잘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아나운서클럽을 통해 제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하는 동안 끊임없는 배움과 자기만능능력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특히 "자신의 장점은 흐리고 단점은 버려라."라는 메시지는 내게 삶의 가르침을 주었다.

글 / CBS 박재홍 아나운서

회원 동정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경진대회 주관



이현정(전 BBS)
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 센터장

7월 21일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 아트홀에서 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 장으로서 가족을 주제로 이중언어경진대회를 주관했다.

이날 박미정(BBS) 아나운서가 사회, 우리 클럽 박민정 사무총장이 심사위원 대표로 총평을 하며 행사를 빛내주었다. 이 회원은 1989년부터 20년간 불교방송 아나운서로 일하다 2008년에 퇴직했으며 그 해 12월 한국다문화센터 창립을 주도했다. 그리고 2011년 12월부터 서울시와 현대차 정몽구재단과 함께 창립한 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를 이끌고 있다.

KBS 퇴직 후 아나운서(주) 대표로 취임



김현욱(전 KBS)
아나운서(주) 대표, MC

지난 6월 말 퇴직 후 전, 현직 아나운서들이 모여 만든 아나운서 전문 매니지먼트 기획사 아나운서(주) 대표로 취임했다. 아나운서주식회사는 소속 아나운서들의 방송 활동을 지원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스피치 등 아나운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회사이다. 2000년 KBS 26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한 김 회원은 8월 5일 SBS '도전 1000곡'에 출연하며 프리랜서로서 얼굴을 알렸다.

영상콘서트와 오페라감상실 운영



정흥숙(전 MBC)
유리디체아카데미 회장

6월 7일 강남구 신사동 세실내과병원 지하 1층 세실아트홀에서 음악평론가 선병철의 해설로 클래식 공연 상황을 감상하는 유리디체아카데미(문의: 010-5225-0882)의 창립 3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정 회원은 1962년 MBC 1기로 방송을 시작해 65년 퇴직 후 미국 유학을 거쳐 1982년부터 2005년까지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교수로 후진을 양성했다. 그 후 2009년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 영상콘서트를, 둘째 목요일에는 라스칼라오페라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



회원 동정

대한민국 예술원상 미술부문상 수상



최만린(전 KBS) 고문
서울대 미대 명예교수

9월 5일 서초동 대한민국예술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차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식(사진: 부인 김소원 씨와 함께 선 최 고문)에서 미술부문 상을 수상했다. 이 날어나온서클럽을 대표해 김규홍 부회장과 박민정 사무총장이 참석해 수상을 축하했다.

KBS 제9기 이사로 선임, 3년간 활동



이병해(전 KBS)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9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로부터 대통령의 임명장을 전수받고 KBS 제9기 이사로써 활동을 시작했다.

11명의 이사진은 앞으로 3년간 방송의 공적 책임,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예산·자금계획 등을 심의·의결한다.

한세대 영산신학대학원서 스피치 강의



최윤락(전 DBS-KBS)
동양미래대 겸임교수

9월부터 경기도 안양 집 근처인 군포의 한세대학교 영산신학대학원에서 '스피치의 이해'를 강의하고 있다.

1976년 DBS에 입사, 2007년 KBS를 퇴직한 최 회원은 2005년 동양미래대학 겸임교수를 시작으로 대구사이버대학, 인하대학교에서 화법과 방송진행 관련 강의를 해왔다.

울산시민아카데미에서 대화법 강연



김효석(전 PBC)
서울종합예술학교 학부장

8월 2일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울산시민아카데미에서 「성공을 부르는 유쾌한 대화법」에 대해 강연했다.

평화방송 아나운서(1994년~ 2000년)를 거쳐 CJ홈쇼핑 쇼호스트 팀장을 지낸 김 회원은 현재 공주영상대학 쇼핑호스트와 전임교수, (주)김효석아카데미 대표, 서울종합예술학교 아나운서·쇼호스트학부 학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양천구에서 여성의 자기관리비법 강연



이숙영(전 DBS-KBS)
SBS 이숙영의 파워 FM DJ

7월 5일 열린 제17회 양천구 여성주간 행사에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자기관리 비법'에 대해 강연했다.

1979년 DBS 입사, KBS를 거쳐 1993년 프리랜서를 선언한 이 회원은 1996년 SBS FM 개국 시스카우트되어 DJ로 활약하며 강연도 하고 있다.

금요일마다 관악FM '노래 속에 말 속에' 진행



이성화(전 부산MBC-TBC)
시니어 강사

8월 3일부터 관악FM(100.3MHz) '굿모닝 세상의 아침마당'(10:00~11:00)의 신설 금요일 프로그램 '노래 속에 말 속에'를 맡아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활동의 일환으로 다문화인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며 봉사 중이다.

19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한선교(전 MBC)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새누리당)
박영선(전 MBC)
법제사법위원장(민주통합당)



7월 9일 한선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박영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돼 19대 전반기 국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홈쇼핑채널에서 '효소김치' 선보여



이지연(전 CBS)
MC, (주)선재가 공동 대표

우수식품업체 (주)선재가의 공동 대표로 영입되었다.

7월 25일 NS홈쇼핑 이지연의 효소김치 특집전을 통해 곡물발효효소를 첨가한 효소김치를 처음 공개, 40여 년 방송 경력을 토대로 초보 사업가로서 성공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KBS 2TV '불후의 명곡' 가요톱텐 편 출연



김병찬, 손범수(전 KBS)
프리랜서 아나운서

7월 21일과 28일 방송된 KBS 2TV '불후의 명곡' 여름노래 특집 가요톱텐 편 초대석에 출연해 MC를 맡았던 당시의 에피소드 등 추억담을 들려주었다.

KBS 1TV '인간극장'에서 일상과 배우활동 소개



임성민(전 KBS)
배우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KBS 1TV '인간극장-후회하지 않아' 편에 출연했다.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배우로 전직, 미국인 영화감독과 혼인한 후 연기에 전념하는 생활을 보여주었다.

KBS 1TV '한국 한국인'에서 귀농일기 전해



이계진(전 KBS-SBS) 부회장
전 국회의원

6월 30과 7월 7일 KBS 1TV '한국 한국인'에 출연했다.

'귀농일기'란 제목으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농사지으며 사는 소박한 일상을 소개했다.

서울메트로의 방송전문위원으로 자리 옮겨



이은정(전 tbs)
서울메트로 전문위원

7월 23일자로 서울메트로의 방송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겨, 기관사들의 방송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 대내외 홍보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8월 31일에는 서울메트로 창립31주년 기념식 사회를 보았다.

이 회원은 1990년 6월 교통방송 공채 1기로 입사해 새벽 5시 생방송 '라디오를 켜라'와 '주말의 클래식' 등을 진행했으며 아나운서부장급 심의실장을 지내고 올 3월 1일 퇴사했다. 서울시장상(2003년)과 한국어문기자협회 특별상(2010년)을 수상한 바 있다.

추모사

스포츠 중계의 명인이광재 선생을 기린다



한국방송사에서 1960년대 만능 스포츠캐스터로 명성을 떨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방송인으로, 목회자로 헌신한 이광재(李光宰) 선생이 지난 8월 30일 미국 LA에서 향년 80세(1932년 8월 8일생)를 일기로 별세했다.

선생은 1956년 12월 서울중앙방송국(KBS)에 입사하여 1970년 4월 '미국의 소리(VOA)'로 떠나기까지 13년 4개월 동안 한국 사회를 풍미한 명어나운서로 방송 미디어의 위상을 한껏 드높였다. 선생은 이제 남산(南山)에 관한 자작 수필 <남산길의 가로등>의 첫 구절처럼 "흘러왔다가 흘러가는 인생"이 되었다.

1960년대는 선생이 빛나는 방송 인생을 구가하던 시기였다. 선배와 동기들이 새로 탄생한 민방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선생은 최고참으로 KBS의 아나운서실 책임자가 되어 라디오 정오뉴스 전담 캐스터로, 공개방송 <퀴즈열차> MC로, 올림픽 중계방송 3관왕(로마-1960, 동경-1964, 멕시코-1968)으로 종횡무진 활약하였다. 여기에서는 선생의 많은 공적 가운데 국내외 각종 운동 경기를 섭렵한 스포츠캐스터로서 기여도만 살펴본다.

첫째로, 선생은 한국 스포츠 방송사상 최다(最多)종목을 중계한 캐스터였다. 1965년 발행 <주간방송>(제99호)에서는 "KA 아나운서실장 이광재"를 소개하며 "무려 24개 종목에 달하는 경기를 중계방송할 수 있는 실력자로서 그 방면의 최고 권위자"라고 지칭하였다. 선생은 같은 해 발행된 <방송>지에 자신이 개척한 종목만도 배구, 아이스하키, 핸드볼 등 14개 종목이라고 밝힌 바도 있다. 둘째로, 선생은 한국 스포츠 중흥의 큰 견인차이자 공헌자였다. 선생이 1960년대 이 땅에 유명무실했던 스포츠 종목을 특유의 힘찬 중계방송으로 활성화시키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셋째로, 선생은 국민에게 위안과 희망을 불어 넣어준 메신저였다. 1960년대 전쟁의 폐허가 가시지 않아 배고프고 고단했던 시절 선생의 미성이 합성된 고성음은 위로제이자 청량제였다.

스포츠캐스터가 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처럼 중계방송의 열정가이자 명인이었던 선생.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라며 외쳐 부르짖는 듯하던 선생의 아나운싱은 한국방송사에 영원히 남아 숨 쉴 것이다.

삼가 선생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한다.

김성호(전 KBS)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전 KBSI 사장

한국소통학회 제10대 회장으로 선임돼



오미영(전 KBS)
가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6월 2일 한국소통학회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날 우리 클럽 회원 중 성경환 tbs 본부장이 현업 부회장, 황유선 중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기획이사, 이정옥 전 방송협회 사무총장이 대회협력이사를 맡았다. 김성호 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가 8대 회장을 지냈다.

1979년부터 1981년까지 KBS에서 근무하고 미주 한국일보 기자, 프리랜서 방송인, 프로덕션 대표 등을 거쳐 가천대학교에 재직 중인 오 회원은 tbs 라디오 '시사전망대'와 케이블TV 공동기획 '파워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제49회 '방송의 날' 특집

축하연서 클럽 회원과 방송관계자 우의 나눠

김황식 총리, 한선교 국회 문광위원장 등 대거 참석해 성황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규홍, 이계진, 방우회 이장춘 이사, 김명숙, 정미홍, 박민정, 박찬숙, 황인우, 채영신, 이혜옥, 윤영미, 맹관영, 전우벽, 이팔웅, 김상준, 황량, 이종태, 홍승택, 정도영

1947년 9월 3일 한국이 호출부호 HL을 배당받은 날을 기념하는 제49회 방송의 날 축하연이 9월 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여의도 63시티 그랜드볼룸에서 SBS 신용철 아나운서의 사회로 열렸다.

1947년 호출부호 HL 배당받은 날 기념 한국방송대상은 1973년부터 시작

축하연에는 김황식 국무총리,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선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사)한국아나운서클럽에서도 강영숙,

김규홍, 김명숙, 김상준, 김성호, 고수웅, 남선현, 맹관영, 박민정, 박찬숙, 배덕환, 성대석, 성경환, 이계진, 이세진, 이윤철, 이종태, 이팔웅, 이형균, 이혜옥, 임국희, 정도영, 정미홍, 채영신, 홍기욱, 홍승택, 황량, 황인우(가나다 순, 존칭 생략) 회원을 비롯해 KBS 운영미인재개발원장과 성기영 아나운서실 한국 어교육사업팀장, tbs 김병훈 아나운서부장이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하고 방송 관계자들과 우의를 나누었다.

한편 1973년 문화체육부가 창설한 한국방송대상은 1976년부터 한국방송협회로 이관되어 시행되고 있다.

칼럼

우리말의 마지막 스승 아나운서

- 방송의 날에 생각한다



이정부
- 전 KBS 아나운서실 부장
- 수필가
- 현 프리랜서 아나운서

아나운서의 전설, 윈로 스피치 학자 전 영우 교수가 최근에 펴낸 책 '고르기아스'를 보면 '공중(公衆)에 영합하는 것은 올바른 스피치 철학이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소크라테스가 2000여 년 전에 갈파한 스피치에

정 하나 변하지 않는다. 우리말 지킴이 여야 할 아나운서까지 교양이나 보도 프로그램에서 유행어를 버젓이 쓰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술하게 TV에 나와 강의하면서, 예외 없이 사투리에 은어, 유행어를 쏟아내고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한다. 격조 있는 스피치는 안중에 없이 우리말 순화에 사사건건 역행한다. 아무리 난세라고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벌떡 일어나 배꼽 쥐고 웃을 일이다.

관한 명쾌한 개념 정리이다. 무릇 스피치는 공중을 이끌어야 한다는 그 말을 우리의 현실에 대입해 보자.

방송 출연자의 한마디 말은 국민의 언어와 인격에 큰 영향 줘 우리말 지키겠다는 반성의 날 되길

SNS 무한표현 시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자 없고 TV만이 스승인 시대에, 10대 연예인들의 은어, 유행어 사용을 비롯한 TV 출연자의 대중의 흥미에 영합한 한마디 말이 어린 자녀들의 말과 품성, 국민 개개인의 언어와 인격, 나라의 내일에 미칠 해악은 상상을 초월한다. 자막까지 동원해 8도 사투리를 바로잡아주는 의식 있는 PD들도 있지만 TV 오락 프로그램의 신개념(?) '자막효과'도 이런 유행어 확산에 한몫하고 있다. 결혼생활 10년도 넘는 여성 출연자의 '우리 신랑'이란 표현을 번번이 고쳐주는 사명감 있는 아나운서도 있지만, 한 여성 아나운서는 '한 인물 한다'는 식의 앵커멘트를 하면서 표

2000여 년 전에 스피치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나선 서구에 비하면, 우리는 스피치 철학은 고사하고 아름다운 표준어를 지키고자 하는 의식도, 열정도, 멋도 없는 언어의 후진국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최고의 아나운서' 저자 박경희 아나운서의 인터뷰 중 "아나운서란 우리말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회사에서 고용한 사람이니 최소한 밥값은 해야 된다."라고 했던 말이 떠오른다.

'방송의 날'은 아나운서만이라도 우리말을 지키겠다는 '반성의 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제39회 한국방송대상 개인상 수상자

축하합니다

아나운서상 성기영



KBS '경제투데이' MC

경제와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에 생긴 <경제 전망대>란 TV 프로그램의 경제뉴스 코너 진행을 시작으로 2002년부터 <성기영의 경제투데이>, <경제세미나>를 맡아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방송하는 틈틈이 경제학 석사와 경영학 박사과정을 밟으며 전문 지식을 쌓으려 노력한 덕분에 자신감도 생기고 10년 넘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 때마다 상을 받게 되네요

더 열심히 경제지식과 자산관리법 전하란 뜻 아닐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됐을 때 한국아나운서연합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아나운서 대상>을 받았는데, 유럽 재정 위기의 여파로 전 세계가 어려운 2012년 올해 또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상을 받게 돼 죄송스런 마음도 들지만, 개인적으로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1991년 KBS 공채 18기로 입사한 이래 화려한 조명을 받지는 않았지만, 묵묵히 라디오 프로그램을 해온 지난 세월이 제게 선물이 되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청취자들에게 전하고, 시장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당국에 전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라는 뜻으로 상을 주셨다고 봅니다.

오늘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을 거울삼아 더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라디오진행자상 손석희



MBC 라디오 '시선집중' MC

그 동안 '시선집중'이 몇 차례 방송대상을 받았지만 개인상은 처음이라 감사한 마음과 함께 좀 쑥스러운 느낌도 있습니다. 제작진이 품의를 올린다 했을 때 사양할까 생각도 했으나 이제 마지막이겠거니 싶어 못이기는 척했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시길...

1984년 1월 MBC에 입사해 2006년 2월에 퇴사하기까지 한 우물만 팠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송을 하던 결국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는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방송'을 하려 애쓴 면도 있었지만, 운 좋게도 '좋은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주어진 덕에 전문성을 키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떤 방송을 하던 방향성을 갖고 실천하는 게 중요 선배들처럼 그런 평가 받을 수 있을지 책임 무거워

아나운서의 위상을 고민하고 그 고민을 실천해오신 선배님들이 없었다면 저를 비롯한 후배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치레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선배님들은 알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동시에 후배님들에게도 제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선배인지를 생각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더 시간이 흐르면 후배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미리 알려드리자면, 이 생각의 무게가 참 무겁습니다. 그게 후배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TV진행자상 지승현



EBS TV '60분 부모' MC

2000년 KBS 26기 아나운서로 입사해, TV '생방송 세상의 아침', '뉴스타임', '주말 9시 뉴스', 그리고 클래식FM '당신의 밤과 음악'까지 분에 넘치는 자리에서 중요한 방송을 많이 맡았었습니다.

2008년 봄,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퇴사를 결심했을 때 행운처럼, 기적처럼 손을 내밀어 준 '60분 부모'. 저를 더 좋은 엄마로,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좋은 방송인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준 고마운 프로그램입니다. 덕분에 진짜 엄마가 되는 길을 걸을 수 있었고 두 아이와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 밥을 짓고, 모두를 챙겨 보내고 텅그러니 혼자 남아 있을 주부들을 떠올리며 나 역시 주부이며 엄마이기에 그들이 조금은 외롭겠구나, 허탈하겠구나, 이런 게 궁금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들의 눈높이에서 말하고, 질문하고, 공감했습니다. 이 상은 저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엄마들에게 큰 용기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더 좋은 엄마 더 좋은 방송인으로 거듭나게 해 모든 엄마들에게도 큰 용기와 격려가 될 소중한 상

이젠 방송에서 잊혀져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큰 상을 받게 되니 아나운서가 처음 되었을 때처럼 의욕이 샘솟는 듯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선배님들의 격려라 생각하고 성실하게, 진심을 담아 방송하는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방송가 소식

라디오와 함께 길을 거닐며 자연에 노닐다

안동MBC 라디오 세계유교문화축전 특집 라디오편타어링



길. 걷던 길이 언젠가부터 달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속도는 길을 삼켜 버립니다. 출발지와 목적지만이 존재하게 되고 그 사이의 과정인 길은 사라지고 맙니다. 속도를 늦추면 길은 제 모습을 나타냅니다. 속도를 버리면 길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라디오편타어링은 오리엔티어링과 라디오의 합성어입니다. 원래는 군대에서 장교들의 훈련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나침반과 지도에 의지해 목적지를 찾아가는 야외 스포츠인 오리엔티어링에 라디오가 더해진 것입니다. 라디오를 통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야 할 방향과 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중간 중간 음악도 듣고 퀴즈도 풀면서 목적지까지 걷게 됩니다.

경북 북부지역은 유교문화의 보고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빼어난 산수와 아름다운 전통문화가 조화롭게 살아 숨쉬는 유교문화의 보고입니다. 곳곳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서원, 향교, 고택 등 유교문화재가 즐비합니다. 우리가 잃은 길, 잊은 채 살아온 길은 그 보고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끈이 됩니다. 세계유교문화축전 특집 라디오편타어링은 그 길을 다시 살리자는 뜻에서 2010년 4월 25일에 시작된 이래 훌륭한 문화 레저 콘텐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안동, 영주, 상주, 문경, 봉화, 청송, 예천, 의성, 영양 9개 시군을 누비며 지역의 숨겨진 길을 소개하고 그 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모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50여 명에 불과하던 참가자가 어느덧 매회 2, 3백 명으로 늘었습니다. 연인끼리, 가족끼리 삼삼오오 숲길을 걷는 라디오편타어링의 묘미에 빠져 들어 매달 라디오편타어링만 기다리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라디오편타어링을 만드는 사람들

안동MBC 라디오의 역량이 총집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는

제가 PD를 맡아 강신우, 강효연, 서성은, 우영경 작가와 함께 레퍼토리를 구성하고 박주영, 반은혜, 이경민, 정초은 MC의 화려한 입담에 강경왕, 김민섭, 송홍규, 이운영 리포터의 부지런한 발걸음을 더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흥형철 MC가 이끄는 현장 진행팀의 헌신과 세계유교문화재단의 아낌없는 지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경북 북부 지역의 수려한 풍광과 풍부한 문화유산이 빛나는 아름다운 길,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참가자들일 겁니다.

아름다운 길, 그 위의 사람들

고모산성(사진)에 올라 경북 제1경으로 손꼽히는 진남교반의 수려한 풍경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문경, 석천계곡의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전통이 살아 숨쉬는 닭실마을의 정취에 젖는 봉화, 임진왜란 때 왜군에 대항한 자산산성에 올라 애국심을 배워보는 상주, 하회마을을 출발해 병산습지를 지나 병산서원에 이르는 안동, 선비위 관광지를 지나 산촌박물관을 구경할 수 있는 영양, 옛 선비들이 한양으로 과거 가던 죽령옛길을 걸어보는 영주, 비룡산을 올라 회룡포의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예천, 운치 넘치는 고운사 천년 숲길을 걷는 의성, 옛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 중평 솔밭에 이르는 옛길을 걷는 청송. 어느 곳 하나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땀 흘리며 걷는 길, 느리게 걷는 길, 목적보다 과정이 소중한 길, 이야기가 있는 길, 그 길의 이야기가 듣고 싶지 않으세요? 라디오를 들으며 숲길을 걸어요. '길을 걷다, 자연에 노닐다' 세계유교문화축전 특집 라디오편타어링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 / 안동MBC 김경환 아나운서

항일단파방송연락운동 물망비(勿忘碑) 기념식

9월 20일 KBS 본관에서 개최 '항일 단파방송 연락운동'을 잊지 말자는 물망비 기념식이 (사)한국방송인동우회 주관으로 9월 20일 오후 2시 KBS 본

관에서 열린다. '항일 단파방송 연락운동'은 1942년부터 1943년에 걸쳐 단파방송을 통해 일본의 전황을 전하며 독립정신을 고취시킨 운동이다.



39기 신입 아나운서 5명 선발

두 달간의 공채 과정을 거쳐 7월 16일자로 강승화(남, 29세, 고려대 독문), 조항리(남, 25세 연세대 경영) 이승현(여, 28세 서울대 화학교육), 이각경(여, 28세, 성균관대 영문학), 김지원(여, 25세, 연세대 신문방송) 아나운서 등 5명이 선발되었다. 한 달간의 인력개발원 집체 교육에 이어 강도 높은 직무교육을 받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각경, 김지원, 조항리, 이승현, 강승화

아나운서실 환경 개선 공사 실시

KBS의 역사와 함께한 본관 3층 아나운서실이 천장 정비와 구조 변경 등 2주간의 환경 개선사업을 마치고 8월 중순 새롭게 선보였다.

이현주 아나운서 9시 뉴스앵커로 발탁

7월 중순부터 조수빈 아나운서의 뒤를 이어 9시 뉴스 앵커로 활약하고 있다.



2009년 3월 공채 35기로 입사한 이 아나운서는 '글로벌 성공시대'도 진행하고 있다.

고민정 아나운서 출산휴가 후 복직

출산휴가를 마치고 9월 3일 복직했다.

'KBS 아나운서가 전하는 바른 우리말 사용설명서' 출간



그동안 한국어연구회에서 배포해온 KBS 한국어 포스터를 간추려 6월 21일 'KBS 아나운서가 전하는 바른 우리말 사용설명서' (주니어김영사)를 발간했다.

표준어와 한국어 발음 원리, 외래어와 자주 혼동하는 단어 설명, 표준어와 잘못된 사용하는 어휘 비교, 한글이나 한국어 관련 최신 정보, 외국인이 본 한국어의 이모저모 등을 비롯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인 '책과 함께, KBS한국어능력시험' 소개 자료와 발음 DVD도 첨부했다.

MBC

올림픽 기간에 런던팀과 국내 응원팀으로 나눠 방송 아나운서국, 올바른 외국어 표기 연구



국내에서는 김대호, 김초롱, 오승훈, 이재은(사진), 김소영 아나운서가 각각 올릉도,

올림픽 기간에 한광섭, 이재용, 양승은 아나운서가 런던 현지의 상황을 전달했고

제주도, 지리산, 연평도, 하회마을에서 국민의 응원을 런던의 선수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방송언어연구팀과 국립국어원 어문팀이 외래어 표기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던 중 런던 올림픽이 개막되어 MBC 아나운서국은 올림픽에 참가한 외국 선수들의 이름 및 행사기간에 쓰이는 외래어를 올바르게 표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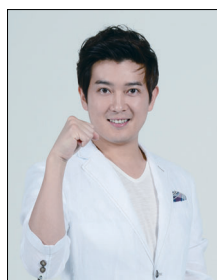
윤세영 명예회장, 아나운서팀 올림픽방송 성과 치하



지난 7월 11일 2012 런던올림픽 SBS 방송단 발대식(사진)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대로 SBS는 중계방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이에 윤세영 명예회장은 8월 20일 서울 목동 사옥에서 SBS의 위상을 높인 아나운서들에게 오찬을 대접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축하연에는 김태욱 팀장을 비롯해 배기완, 김정일, 이현경, 배성재, 김일중, 박선영 아나운서가 참석했다.

최기환 아나운서 모닝와이드 진행으로 사내 특별상 수상



지난 7월 2일 '출발 모닝와이드'의 진행 솜씨를 인정받아 SBS 사내 특별상을 수상했다.

2010년 SBS 연예대상 아나운서상, 2011년 제12회 대한

민국영상대전 포토제닉상 MC 부문 상에 이어 세 번째 수상이다.

최 아나운서는 2003년 입사한 이래 한밤의 TV 연예, 작렬 정신통일, 접속 무비월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으며, 지난 3월부터 KBS 이정민 아나운서와 함께 국민연금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건강 버라이어티 쇼 '올리브' 100회 방송 최지해 아나운서 개그맨 표인봉 공동 진행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건강 버라이어티'를 표방하는 '올리브'가 100회를 맞았다. 자가진단, 건강신호등, 건강레시피 등의 코너로 유익한 건강정보를 전하는 올리브는 최지해 아나운서와 개그맨 표인봉이 MC를 맡고 있다.

메인 뉴스 앵커 유진영 미국 연수 후 복귀

OBS 메인 뉴스 진행을 맡았던 유진영 아나운서가 14개월여 미국 연수를 마치고 복직했다. 결혼하며 재충전과 견문을 넓히고자 휴식기를 보낸 유 아나운서는 다시 OBS의 간판 뉴스인 'OBS 뉴스 M'과 '명불허전'을 통해 시청자를 만나고 있다.



아나운서 제작 스파트 '행복을 부르는 말 한마디' 방송

'아나운서' 하면 표준발음을 구사하는 '바른말 교과서'의 역할을 담당해왔고 그동안의 활동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CBS아나운서들

CBS 아나운서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말의 '관계성'에 주목하고 2010년 7월부터 프로그램 사이에 <행복을 부르는 말 한마디>라는 스파트를 제작·방송하고 있다. 청취자들의 사연, 출연자들의 이야기에서 착안해 사람 사이에 윤택을 역할할 수 있는 한마디의 말을 한 달에 두 개씩 생활 밀착 예시문으로 제안한다. 미처 표현하기 힘든 정감 어린 사랑의 말,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행복을 부르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CBS 아나운서들. CBS 아나운서 홈페이지(<http://ann.cbs.co.kr/>)에서 자세한 얘기 나눌 수 있다.

영화 음악 전문 DJ 신지혜 아나운서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개막식·영화 <피에타> 수상 기념 기자회견 사회



신지혜 아나운서가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제 14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개막식(사진)의 사회를 보았다. 작년 이 영화

제의 경쟁부문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데 이어 올해는 배우 조성하와 함께 개막식 진행을 맡은 것. 또 7월 20일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 제작보고회, 이어 9월 11일 열린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사회를 맡았다.



신입 남녀 아나운서 2명 선발, 교육과정 거쳐 방송 투입

'오늘이 축복입니다' 진행자 김수영 아나운서 출산휴가 마치고 복귀

평화방송이 신입 아나운서 두 명을 뽑았다. 김지현(사진 왼쪽), 김슬애 아나운서가 지난 7월 2일부터 열심히 배우고 익히며 정진하고 있다.



또한 개그맨 이동우와 함께 '오늘이 축복입니다'를 진행했던 김수영 아나운서가 출산휴가를 마치고 7월 20일 복귀했다. 김 아나운서는 뉴스를 담당하며 휴가 가는 동료들의 빈자리를 대신했다.

편집자 주: 제6호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11주년 기념 공개방송 기사가 인쇄 과정에서 잘못 처리되었습니다. 진행자인 김현주 아나운서가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며 사회복지회 관계자와 후원자,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해 공개방송을 열었다는 본문이 누락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제3회 어린이 청소년 창작찬불동요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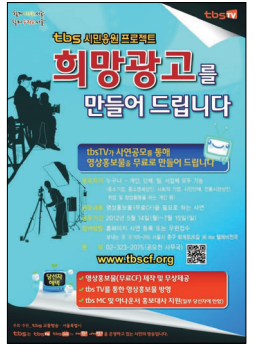
불교방송이 주최하는 <제3회 어린이 청소년 창작찬불동요제 "맑은 노래, 부처님 마음">이 정승조 아나운서 진행으로 7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창작 찬불가의 발굴과 보급을 위해 주최하는 <창작찬불동요제>는 청소년들의 방학기간에 맞춰 열리며, 해마다 전국에서 참가하는 단체 수와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또한 8월 20일 불교방송 전 직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불교방송 공영 미디어랩 지정을 촉구하는 정진법회>를 열었다.



국내 방송사 최초 재능기부 프로젝트 시민응원 희망광고 무료 제작 방송

tbs는 지난 5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영상홍보물(CF)을 무료로 제작하고 tbs TV를 통해 방송하는 국내 방송사 최초의 재능기부 프로젝트 '희망광고를 만들어드립니다' 사연을 공모했다. 그 결과 8월 1일 개인사업, 개인광고, 공익사업 및 단체, 회사 및 제품 등 20팀을 선정했으며, 8월 16일 광고제작증서 수여식을 거행했다. 영상 홍보물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비용 문제로 고민하는 중소기업, 시민단체, 구직자 등을 위해 무료로 영상물을 제작, 제공하는 희망광고와 희망다큐 프로그램은 9월 17일 개편에 맞춰 소개될 예정이다.



'우리말 고운말' 9월에는 의성어 의태어 주제로 방송

아나운서들이 직접 제작하는 '우리말 고운말' (FM 월~금 오후 9시 56분)이 지난 6월부터 주제를 정해 방송되고 있다. 9월의 주제는 '의태어 의성어'이다.

이에 따라 연말에 방송 내용을 엮어 책을 발간할 때에도 주제별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이 담기게 되어 독자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극동방송 미주 진출, 로스앤젤레스에서 월~토 하루 4시간 송출

극동방송이 미국 LA 우리방송(AM 1230)과 제휴해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5시부터 7시,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방송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주극동방송 송출 감사콘서

트가 8월 5일 충현선교교회에서 열렸다. 박종호/ 꿈이있는자유/소리엘/이은수/손영진/, 랜디김 밴드, 충현선교교회 브니엘교단이 출연해 감동의 콘서트를 선사했다.

크리츠천 음악공감 수채화 공개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제작

극동방송이 여름특집으로 CCM 전문 공개방송 '크리츠천 음악공감 수채화' 3TIMES CONCERT(기획·연출 최혜심)를 개최했다.



8월 2일과 17일, 18일 3회에 걸쳐 압구정 예술포럼 공연장에서 펼쳐진 공개방송에는 CCM그룹 용기장미, 마르지않는 샘, 바보생각밴드, CCM가수 이연수, 주리, 소리엘 장혁재, 재즈보컬리스트 유효림, 테이크어반 윤희, 슈퍼스타K 시즌1 박태진, K POP 스타 건반 3인방 손미진, 테너 오승환, 팝페라 가수 스텔라, 섹스포니스트 허민 등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출연했다.

특히 이 공개방송은 극동방송 인터넷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보이는 라디오 녹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라디오: FM 106.9MHz 토 20:20-21:00 팟캐스트-극동방송 수채화, www.febc.net)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제공

책임감을 느낀다 → 책임을 느낀다, 책임이 무겁다
사격을 쏘다 → 사격하다, 총을 쏘다
피해를 입다 → 피해를 보다, 손해를 입다
자매결연을 맺다 → 자매결연하다
혹사시키다 → 혹사하다

쓰이는 용도가 다르다 → 쓰임새가 다르다, 용도가 다르다
사사받다 → 사사하다
방학 기간 동안 → 방학 기간에, 방학 동안
대략 10개 정도 → 대략 10개, 10개 정도
토요일날 → 토요일

알림

하나은행 358-910003-70805 (사)한국아나운서클럽 연회비 10만 원

조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6월 11일~9월 10일

<기부금>

변용전 수석부회장 100만 원
박종세 고문 50만 원
정미정 (전 KBS) 100만 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원 (KBS) 10월 26일 오후 5시 서울 방배동성당에서 사업가와 혼인
조혜선 (청주MBC) 9월 1일 회사원과 혼인

퇴직: 김경란, 전현무 (KBS), 최윤영 (MBC) (편집자 주: 제6호 김현태 (KBS) 퇴직 기사를 김현욱으로 바로잡습니다. 죄송합니다.)



Zoom In - 런던올림픽 방송단 방담

올림픽의 역사를 새로 쓴 주역들의 17일을 돌아보다



MBC 이재용, SBS 이현경, KBS 유지철(왼쪽부터) 아나운서가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다.

무엇보다 이번에 중계방송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 같습니다.

철: KBS 스포츠 중계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해설위원과 캐스터가 함께한 워크숍을 열어 '올림픽 정신을 살리고 금메달 지상주의를 지양하자'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용: 시청자나 선배님들께 죄송한 것이 저희는 파업의 여파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 없이 무사히 중계를 마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다행히 제작진 간의 호흡이 잘 맞았고, 특히 캐스터들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경: 숨겨진 선수들의 스토리를 들려주고, '스토리를 넘어서 히스토리를 만들어서 감동을 주자'는 것이 목표였지요. 결과보다 그간의 노력을 중시해 부정적인 표현을 삼가자는 지침은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도 적용했습니다.

순차중계가 처음 도입되었는데 방송해보니 어떨던가요?

철: 방송사가 동시중계를 하면 캐스터와 해설자 처지에서 스트레스가 상당해요. 방송진행능력이 곧 시청률로 비교가 되니까요. 그래서 순차중계가 오히려 마음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용: 결과를 떠나서 경기 내용이 좋고, 감동적인 중목이 많이 배정된 방송사가 되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PD들이 무척 고생을 하더라고요. 방송하다보면 욕심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방송사마다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걸 지키려니까 쉽지 않은 않았던 모양이에요.

경: SBS는 체조가 3순위라 저는 경기결과가 나오고 방송을 해 아쉬웠습니다. 다 다루면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경쟁 선수 1명과 양학선 선수의 경기 다음 "금메달입니다!" 하고 바로 시상식을 보여주니 '시청자가 볼 때 뜬금없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함께 활약한 스포츠캐스터들의 면모도 소개해주세요.

철: KBS는 메인 MC에 조우중, 이지애, 스포츠뉴스에 엄지인, 그리고 김성수(수영/탁구), 조건진(양궁/레슬링), 전인석(사격/트라이애슬론), 서기철(축구/육상), 최승돈(펜싱/핸드볼), 유지철(유도/개·폐막식), 장웅(기계·리듬체조) 등 7명의 전문 스포츠캐스터를 비롯해 라디오 진행 최시중, 굿모닝 대한민국 진행 김기만 등 12명의 아나운서가 현지에 파견됐습니다. 서울에서도 표영준, 유애리, 이승연, 김현태, 이창진, 이재후, 이재홍, 이광용 아나운서가 중계에 동참했고요, 한석준, 오정연, 이영호, 김보민, 오연중, 장수연, 이정민 아나운서가 진행을 보았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유학했던 최승돈 아나운서와 함께 개막식과 폐막식을 중계했는데, 남자 아나운서 둘이서 진행하는 것은 최초였어요. 정말 든든했고, 결과가 좋아서 뿌듯합니다.

용: 런던에서 저와 MBC 스포츠플러스 김민아 아나운서가 메인 MC, 양승은 아나운서가 올림픽뉴스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캐스터로서 한광섭(양궁/유도/레슬링) 아나운서와 MBC스포츠플러스의 신승대(배구/하키/다이빙), 정병문(탁구/사격), 김민아(폐막식/리듬체조/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아나운서, 고창근(육상/체조), 김성주(개·폐막식)축구/수영), 임경진(핸드볼/펜싱) 전 아나운서 등 9명이 현지에서 활약했습니다. 서울에서도 김창욱 아나운서가 중계에 동참했고, 최대현, 김초롱 아나운서와 기상캐스터 출신 박은지, 원자현 MC, 개그맨 서경석 씨도 올림픽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건 스포츠캐스터들입니다. 스튜디오만큼 지원이 없는데도, 전문가적인 식견을 재료로 밥상을 차리고 먹고 설거지까지 다 하니 참 멋지더라고요.

경: SBS는 올림픽을 경험시키기 위해 신입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올림픽방송 MC로 박은경, 김환, 박선영을 비롯해 유혜영, 김민지, 김주우가 활약했고요. 최기환, 유경미가 런던와이드 MC를 맡았습니다. 박은경(체조/리듬체조)과 김환(펜싱/테니스/축구)은 중계도 했지요. 스포츠캐스터로 배기완(개막식/수영/양궁/역도/탁구), 김정일(폐막식/유도/육상), 손범규(배드민턴/탁구/태권도), 이현경(체조/리듬체조/다이빙/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사이클), 박찬민(사격/핸드볼), 김일중(레슬링/육상/하키/축구/배드민턴), 배성재(축구/펜싱), 김환(펜싱/테니스/축구), SBS ESPN 윤성호(권투/축구) 아나운서 등 16명이 현지에 파견됐지요.

초반에 유도, 펜싱, 양궁 중목의 선전으로 저는 본의 아니게 열흘 넘게 방송을 못했어요. 뒤늦게 양학선 선수의 금메달과 손연재 선수가 선전해 밥값 못한다는 놀림을 만회했습니다.

방금 공부 이야기가 나왔는데, 생방송으로 중계하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지요?

철: 95년 입사해 교육받을 때 이규향 선배님이 씨름 중계하는 현장에 갔어요. 이렇게 선배님들께 도제식교육을 받으며 한국어연구회를 통해 정확하고 품위 있는 방송언어를 연마했습니다. 또한 전문성을 키우고자 저는 유도를, 최승돈 아나운서는 펜싱을 배웠고요. 심판자격증을 따는 사람도 많습니다.

원경 경기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둔 2012 런던올림픽 중계방송의 주역으로 국민에게 큰 기쁨을 준 아나운서들. 올림픽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지난 8월 20일 지상파 3사 스포츠 팀장을 만나 올림픽 중계방송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KBS 유지철(이하 '철'), MBC 이재용(이하 '용'), 그리고 SBS는 손범규 팀장의 일본 출장 관계로 본보 편집위원인 이현경(이하 '경') 아나운서가 대신했다.

글 / 유혜진 객원기(eternityjw@naver.com)

용: 중계방송을 하는 아나운서들은 스스로 엄청나게 노력하지요. 스포츠에 대해 진심으로 애정을 갖고, 책을 읽고, 현장에서 관계자, 선수, 해설자를 만나고 예행연습도 합니다. 작고하신 송인득 선배님은 오디오 일기도 쓰셨어요. 존경스럽지 않나요?

경: 듣다보니 제가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네요. 당연히 스포츠캐스터로서 전문성을 키워야 합니다. 알고 질문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건 다르니까요. 이번에 체조를 중계할 때 박종훈 해설위원과 용어에도 신경을 썼어요. '양!', '양 이 아니라 '양학선 기술' 이 정확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오심 논란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당시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철: 조준호 선수 애길 안 할 수 없겠죠. 심판 셋이 모두 청색 기를 들어 조준호가 4강에 진출했다고 말하는 순간 심판들이 심판위원장의 눈치를 보더니 다시 흰색 기를 들어 일본 선수의 승리로 반복하더군요. 유도 중계를 10년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레슬링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아제르바이잔 선수만 만나면 석연치 않게 졌거든요? 이에 레슬링협회가 아제르바이잔이 매년 세계레슬링연맹 회장을 국민 초청하는 등 로비를 한 사실과 심판 명단을 증거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다음날 김현우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지요.

용: 일단 오심이 나면 그냥 조용해져요. 그 상황에서 말 한 마디 잘못하면 큰일이니까 매우 신중해지고 분위기가 가라앉지요. 특히 박태환 선수가 예선에서 실격 판정을 받았을 때는 캐스터나 해설자는 물론 전 국민이 어리둥절했었습니다. 다행히 판정이 번복된 덕분에 저희 MBC가 주력 중목인 박태환 선수의 수영 경기를 계속해 중계할 수 있었지요.

경: 제가 중계한 체조 남자 단체전에서 일본의 마지막 선수가 마무리 동작이 완벽하지 않았는데도 점수로 인정받았고요. 리듬 체조에서는 다시 채점을 요청했다가 도리어 점수가 내려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오심을 막고자 '비디오 판독'을 하지만 경기가 늘어지기도 하고 시청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공정하고 박진감 있게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쪽으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런던올림픽 중계방송 총평도 부탁드립니다.

철: 선수들의 활약 덕분에 중계방송이 살았지요. 세계 1위와 2, 3위는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금메달 못지않은 값진 은메달과 동메달을 딴 선수들, 또 개인 기록을 경신하며 최선을 다한 선수들이 있어

폭염과 경기 침체로 힘들었던 국민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거죠.

용: 저희도 잘하고 싶은 욕심은 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습디다. 런던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한 아나운서들도 있었고요. 그나마 대한민국 선수들이 정말 잘해줘서 올림픽 중계방송도 호평을 받았고 저희도 방송을 무사히 마치지 않았나 싶어요.

경: 두 분 말씀에 동의합니다. 일단 올림픽은 선수들이 잘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감동을 줄 때 중계도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축구에서 배성재 아나운서와 차범근 해설위원의 중계방송이 '승리의 마스코트'가 되었는데요. 이 또한 선수들 덕입니다.

끝으로 아나운서클럽 회원님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철: 1948년 KBS 중앙방송국 민재호 선배님이 방송 장비 없이 공중전화로 선수들의 활약상을 전해 주셨던 런던에서 중계방송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선배님들이 쌓아 오신 해외 스포츠 중계 역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용: 예전에는 올림픽에 갔다 온 선배들이 힘들다고 하면 "에이, 좋지 뭐 그래," 라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시설도 좋고 지원도 많은데 그래도 직접 가보니 힘이 더군요. 늘 존경해왔지만 우리 아나운서 선배님들께서 정말 대단하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개막식을 중계하는 KBS 유지철, 최승돈 아나운서



축구 중계 중인 SBS 배성재 아나운서와 차범근 해설위원



MBC 올림픽 중계팀(왼쪽부터 신승대, 정병문, 이재용, 고창근, 김민아, 임경진, 김성주)

경: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선배님들이 후배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가끔 모임에 나가면, 대단한 분들과 아나운서라는 이름으로 뭉칠 수 있어 영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정받는 후배가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World Best Since 1980
한일원자력 주식회사
 Total Service

• 원자력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 ✓ 방사선 방호관리
 -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작업관리 및 물품반출입 관리
 - 방사선감시기 운영
 - 방사선관리구역 및 제한, 보전구역 방사선(능) 측정
- ✓ 방사성폐기물관리
 -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관리, 감용설비 운영 및 저장고 관리
 - 방사선관리구역 계측실 운영
- ✓ 보건물리
 -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개인피폭선량 평가 및 관리
- ✓ 품질관리
 - 품질보증계획서/절차서 수립 및 관리
 - ISO 9001:2000 원자력 및 방사선관련 서비스 유지 관리

• 방사성 의약품

- ✓ 방사성동위원소 의약품 생산 및 판매(Radioisotope Medicine sales)
- ✓ 싸이클로트론 시설 운영(Cyclotron Facility Operating)

• 개인피폭 선량 평가 및 관리 서비스

- ✓ 열형광 선량계 (Thermo Luminescence Dosimeter, TLD)
- ✓ 광자극 선량계 (Optically Stimulate Luminescence, OSL)
- ✓ CR-39 선량계 (Neutron, Alpha Detector)

• 방사선관련 시설/인허가 서비스

- ✓ 방사선차폐시설 설계/시공 (Design and Engineering of Radiation Shield)
- ✓ 동위원소시설 설계/시공 (Design and Engineering of RI Facility)

• Sales Representative List

- ✓ Thermo (Radiation Detector, Analyzer and etc.)
- ✓ BSI (Radiation Detector, Analyzer and etc.)
- ✓ Gamma Sonics (Radiation Detector, Weather Monitoring System and etc.)
- ✓ Landauer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Dosimetry)
- ✓ Radosys (Alpha and Neutron Personal Monitoring System)
- ✓ Satreci (Environmental Radiation Measurement System)

• Radioisotope & Accessories Sales

- ✓ 방사성동위원소 (Radioactive sealed & unsealed Source)
 - Co-58, Co-60, Cs-137, Ir-192, Ac-227, Ag-110m, Au-198, F-18, C-14, Fe-56
 - Ga-67, Ga-72, Ho-166, I-123, I-125, I-129, I-131, In-114m, P-32, Rn-226 etc.
- ✓ 방사선계측기 (Radiation Measuring Equipment)

• Agency Business

- ✓ 방사성 물질 취급 관련 컨설팅업무 (Radiation Consulting)
- ✓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대행 (Radiation Safety Management Agency)

◆ 본사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202-4번지 동영벤처스텔 3차 301호
- 전화번호 : 031 - 443 - 4284
- 팩스 : 031 - 443 - 4289

